



With KAU Webzine

Twenty-second steps

나래의 은익을 꿈꾸며 비상하라!

새내기성공센터

목차 With KAU 함께 이루는 꿈

새내기성공센터 3중멘토 활동	
2023 전공노들돌행사	2
2023 흥미진진 MBTI 해석특강	3
2022 재학생 멘토들의 멘토링 이야기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우리 전문대 아님”	4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아이씨”	5
신소재공학과 “신소재 꽃내기”	6
소프트웨어학과 “숲물리에”	7
스마트드론공학과 “꿈과 희망의 항공대”	8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KAUing STAR”	9
공학계열 “명석한 조”	10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대 새싹반”	11
항공운항학과 “붉은 돼지들”	12
경영학부 “라운”	13
자유전공학부 “자유롭게 저 하늘을”	14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이치조 미사키	15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항공운항학과 “도란도란”팀 인터뷰	17
경영학부 “항아리”팀 인터뷰	21
4월 웹진 퀴즈 이벤트	
With KAU 웹진 퀴즈 풀고, 리뷰를 남겨주세요	25
새내기성공센터 2023년 5월 일정	
이달의 행사 일정	28



표지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심재환] 저작권
 [촬영지역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With KAU 웹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023 새내기 전공노들돌 행사

새내기성공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하여 3월14일 부터 3월30일까지 학부(과)장과 소통하며 전공에 대한 심화탐색 할 수 있는 전공노들돌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생활 및 진로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 소개하며 전공에 대한 학습방법과 함께, 학사 정책이나 제도, 전공에 대한 최신기술동향 같은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 또한 전공 및 대학생활에 대한 질의응답을 사전접수 받아 학부(과)장의 공신력 있는 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점 해소와 함께 학부(과)장과 다수의 전공교수 참여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신입생은 참여소감을 통해 “학과에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우리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만족스러웠고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 교환학생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했으며 “1시간이라 아쉬웠지만, 잠깐이라도 저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학부장님이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내기지원팀장은 “신입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리 대학만의 특색을 살려 미래 산업과 연관된 전공 정보와 진로체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 흥미진진 MBTI 해석특강

새내기성공센터는 2023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멘토를 대상으로 ‘흥미진진 MBTI’ 대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설렘과 긴장 가득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신입생들과 재학생선배 멘토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참석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격유형 기반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번 MBTI 해석특강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되어 그간 코로나19로 사회적 교류가 어려운 시기에 빠르게 상호작용하고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MBTI가 주목받은 것을 반영하듯 총 235명이 참석하여 멘토-멘티간 유기적인 활동과 퀴즈를 진행하며 멘토-멘티간 상호 협업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다 같이 퀴즈를 풀어보며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룹활동을 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학생들은 나를 이해하고 주변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내기지원팀장은 “MBTI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로 보고 주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신입생들의 니즈를 살피 진로상담을 강화하여 신입생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우리 전문대 아님”

항공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전문대냐고 물어볼 때가 잦아 그에 대한 울분을 담은 팀명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우리 전문대 아님

- ☆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우정 형성
- ☆ 새내기들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 멘토 : 멘티들이 입학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멘토링 활동을 마치게 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동안 멘티들과의 잦은 교류로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좋았고, 9명의 친구가 생긴 느낌이었어서 행복했다. 멘티들이 2학년이 되어서도 계속하여 교류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멘티들이 활동을 마치며 고마웠다고 말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 멘티 : 선배멘토가 시험 관련 정보들과 공부 팁을 얻을 수 있어서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가지 활동들도 진행해주시고, 참여하면 보상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아이씨”

항전정 C반 친구들이 모여서 “나는 C반이다”는 의미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 아이씨

- ☆ 멘티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진행
- ☆ 같은 과 선배로서 멘티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 해결과 학업적 증진을 위해 진행

▣ 멘토 : 그냥 허무하게 보낼 수 있던 막학기를 멘티들과 멘토링을 통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좋았다. 4년 동안 학교생활을 해오면서 쌓인 짬과 조언도 해줄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의미있었다. 내가 멘토였지만 이 친구들을 통해 배우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함께해준 내 멘티들에게 고맙다.

▣ 멘티 :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아 연락을 자주 드렸는데 항상 잘 대답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선배가 될 거 같아요.

참여소감

신소재공학과 “신소재 꽃내기”

신소재 꽃내기는 신입생을 뜻하는 새내기와 6명의 아이들이 꽃다발을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음

우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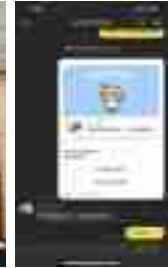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신소재 꽃내기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선배와 후배의 유대감 형성
- ☆ 새내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여 학교에 쉽게 적응

- ▣ 멘토 : 내가 18학번이다보니 신입생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신청했던 멘토 멘티였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멘티들은 오랜 만에 보는 형처럼 친근하고 용기 있게 먼저 잘 다가와 주었고, 나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잘 어울리려고 더욱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다.
- ▣ 멘티 : 학교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멘토님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의 수업이나 진로설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학교생활 질문들에 대답해 주시며 열심히 멘토링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숲물리에”

멘티들에게 팀명 공모를 받아 최종적으로 채택된 팀명입니다. 와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인 ‘소믈리에’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새내기들의 당찬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숲물리에

- ☆ 새내기들의 진로 방향 구체화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즐거운 대학생활 및 자기계발

- ▣ 멘토 : 제가 1학년때 멘티로 참여했던 멘토링 활동에서는 멘티들의 활동 참여가 많이 저조했는데, 제가 멘토를 맡아 1년동안 멘토링을 진행할 때는 멘티 친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곧 2학년 진학을 앞둔 멘티들을 보니 뿌듯하고 선배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 ▣ 멘티 : 동기들과 같이 멘티를 하며 친해지고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토 선배님을 통해 학교에서 지원하고 주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쉽고 더 자세히 알고, 교수님과의 만남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드론공학과 “꿈과 희망의 항공대”

멘티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우리활동.



9월

9월



12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페어링

- ☆ 신설과에 들어와 타과와 다른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 멘토 : 1학년과 2학년이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 쉽지 않았는데 멘토멘티 활동을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이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 ▣ 멘티 : 멘티들끼리도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멘토링 팀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 멘티 :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학과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 ▣ 멘티 : 멘토 멘티활동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선배들과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AI자율주행시스템공학과 “KAUing STAR”

항공대의 별들이 될 사람들이라는 뜻

우리활동.

]

9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 KAUing STAR

- ☆ 항공대의 다양한 공모전 참여
- ☆ 다양한 친목활동을 통한 돈독한 선후배관계 형성

- ▣ 멘토 : 1년동안 신설과 멘토로 있으면서 분명 다른과였지만 같은 과 선배 인 것처럼 대해준 멘티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하고 싶습니다. 1년전 멘토를 붙고 계획서를 쓰면서 22년도를 어떻게 보낼까 계획했을 때 와 지금을 생각해보면 생각했던것만큼 친해지지 못한 멘티들도 있는 거 같고 상당히 친해진 멘티들도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3중멘 토링을 통해 그래도 멘티들 모두 학교생활을 잘 적응한 것 같아 뿌듯 하기도 합니다.
- ▣ 멘티 :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전공들이 나중에 다 회사에 취업했을 때 다 쓸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소감

공학계열 “명석한 조”

멘티의 이름을 빌려 명석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조라는 의미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명석한 조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멘토 :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멘토로 활동하여 새내기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막상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멘티 : 1년 동안 매우 재미있었고 멘토님을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 멘티 :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있는 편이라 처음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멘토님께 도움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여소감

항공교통물류학부 “항공대 새싹반”

푸릇푸릇한 새싹처럼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항공대 새싹반

- ☆ 새내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위하여 시간관리 노하우 전수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멘토 멘티간의 우애 형성

▫ 멘토 :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는 동안, 1학기 때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열심히 진행해 보려고 노력했다. 초반에는 만남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회수로 만남을 갖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갈 수록 저조한 참여율로 인하여 활동이 줄어든 것은 아쉬운 것 같다.

▫ 멘티 : 그동안 멘토링 하면서 멘토링을 통해서 학교에서 제가 몰랐던 많은 정보(활동, 학교 시설..)을 알게 되어서 우선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첫 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좋았고 한 번씩 제가 놓친 정보들을 선배님께서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 동기와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거 같습니다~

항공운항학과 “붉은 돼지들”
지브리사의 붉은돼지에서 영감을 받아 작명함

우리활동.



[

8월

12월

]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붉은 돼지들

- ☆ 전공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배우기
- ☆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고민 중인 진로 결정 짓기

- ▣ 멘티 : 학교생활에 있어 불안함과 걱정들이 많았고 진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으나 멘토링 활동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떨쳐낼 수 있었음.
- ▣ 멘티 : 좋은 선배들을 만나 앞으로 걸어갈 길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음.
- ▣ 멘티 : 1학기에 이어 학교생활을 동기들과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 있었음.

경영학부 “라온”

‘라온’은 즐겁게 라는 뜻의 순우리 말입니다. 멘티 멘토 모두 즐겁게 1년 동안 활동하기를 희망하면서 팀 명을 ‘라온’으로 정했습니다.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라온

- ☆ 새내기 멘티들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한 여러 도움과 팁 제공
-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기

- ▣ 멘토 :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같은 친구들과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1학기에 비해 많이 친해진듯 보였으나, 서로 바쁜 일정 탓에 대면으로 만나서 잘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멘티들개개인으로 하나씩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다.
- ▣ 멘티 : 학교 생활을 하면서 멘토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든든했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물어보면 진심으로 답변해주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멘토였음. 항상 감동을 주는 멘토였음. 또한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멘토처럼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음. 이 활동은 새내기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임을 느낄 수 있었음.

자유전공학부 “자유롭게 저 하늘을”

노래 가사처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하늘을 훨훨 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우리활동.



9월

12월



팀명
활동목적

참여소감

▣ 자유롭게 저 하늘을

- ☆ 새내기들의 친목 및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대학생활의 질 향상
- ☆ 다양한 활동을 통한 대학생활 경험 쌓기

- ▣ 멘토 : 자유전공학부 멘토링을 하면서, 저 또한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유전공학부 멘티들이 본 전공을 선택하고 겪는 어려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항공교통물류학부로 전공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더 많이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멘티 : 많은 동기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멘토링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들어 좋았습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추천 도서 소개

머리는 너를 잊어도, 심장은 너를 잊지 않았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하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

츰츰히 쌓아 올린 서사 위에서 불꽃처럼 터지는 강렬한 전율!



머리가 아플 정도로 평평 울고 말았다.
반드시,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_ 독자평

머리는 너를 잊어도, 심장은 너를 잊지 않았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하루,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
츰츰히 쌓아 올린 서사 위에서 불꽃처럼 터지는 강렬한 전율!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 가미야 도루. 괴롭힘당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다.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린다. “1반의 히노 마오리에게 고백하면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을 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짓 고백.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았지만, 히노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고백을 받아들인다.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그렇게 시작한 가짜 연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히노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도루는 세 번째 조건을 깨고 고백을 하고 만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나는 병이 있어. 선형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려.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날마다 기억을 잃는 히노와 매일 새로운 사랑을 쌓아가는 날들. 도루는 히노의 내일을 언제까지고 지켜줄 수 있을까? 이들의 관계를 뒤흔들 어두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26회 전격소설대상을 수상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는 대담한 구성과 치밀한 심리 묘사,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돋보이는 수준 높은 청춘 소설이다. 자극적인 사건 없이도 한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술술 읽어 나가게 만드는 이야기의 힘이 대단할 뿐 아니라 결말로 달려가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선사해 독자를 큰 충격에 빠뜨린다. 일반적인 청춘 소설의 공식을 따라가지 않고 충격적인 사건을 과감하게 배치해 독자에게 깊고 진한 여운을 남기는 솜씨가 신예 작가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감탄을 자아낸다.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읽은 연애 소설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더없이 아름답고 싱싱한 소설.” “머리가 아플 정도로 평평 울고 말았다. 반드시,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이다.”

이 책을 먼저 읽은 일본 독자들이 보낸 이 열광적인 반응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선명히 그려지는 풍경,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실적인 캐릭터, 너무나 사랑스러워 더없이 안타까운 아름다운 청춘의 초상.

조건부 연애를 시작한 도루와 히노는 매일 방과 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도시락을 싸 들고 벚꽃 구경을 가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쌓아간다. 아직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러운,

두 사람의 설익은 감정이 훑날리는 봄의 벚꽃, 초여름의 자전거, 한여름의 불꽃놀이와 같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통과해가며 점점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첫사랑의 아련한 감성, 막 시작하는 사랑이 품고 있는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아슬아슬한 그 감정을 계절에 따른 변화와 싱그러운 이미지로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제 막 쉽지 않은 사랑을 시작한 두 주인공의 곁에는 각자의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두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탱해주는 다양한 인물이 있다. 약간 비만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된 시모카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약해져버린, 하지만 아직도 소설가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떠난 누나, 도루와 히노의 사랑을 바로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이즈미 등 현실감 넘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소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더불어 이 책은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지만 청춘이 통과여처럼 거치는 방향, 그 속에서 나름대로 길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 또한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 가족 간의 갈등을 외면하고 묻어두기만 했던 도루, 우연한 사고로 얻은 ‘선행성 기억상실증’으로 고통받는 히노, 부모님의 별거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즈미, 이유 없는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친구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모카와 등 흔들리고, 부딪히고, 나아가는 인물들의 심리를 능숙한 완급 조절을 통해 섬세하게 엮어냈다. 독자는 이들이 경험해가는 성장통을 지켜보며 자신의 청춘 시절을 떠올리고, 처음 마주하는 삶의 고난을 진지하게 헤쳐 나가는 모든 청춘을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도란도란”팀
이진혁멘토, 이정욱멘티, 김성현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학년도 1학기 3중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항공운항학과 “도란도란”팀의 멘토링 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Q1. 2023학년도 3중멘토링에 참여하신 멘토, 멘티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혁 멘토 : 23학번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친구들과 1년간 함께할 항공운항학과 19학번 이진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다양한 행사와 문화를 후배들에게 느끼게 해 주고 싶고 신입생 때 제가 느낀 어려움들을 도와주고자 멘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 멘티 :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3학번 이정욱입니다. 멘토-멘티 활동에서 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멘토-멘티를 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요 각 활동마다 일정을 멘토-멘티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현 멘티 :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23학번 이진혁 멘토님 멘티 김성현입니다! 저는 저희 3중 멘토링 팀의 추억 기록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는 자리를 가질 때 카메라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소중한 추억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Q2. 팀명이 “도란도란”인데요 그 의미와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진혁 멘토 : 작년에 멘토링 활동을 해보면서 멘토와 멘티들 사이의 관계가 3중 멘토링 활동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 정겹고 사이 좋은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를 의성어 도란도란으로 표현했습니다.

Q3. 한국항공대학교 합격 후 처음 선배멘토에게 연락을 받고 만났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이정욱 멘토 : 아무래도 첫 대학생활이고 대학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이진혁 멘토님은 저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전화로 처음 얘기해 보았을 때 매우 친절하셨고 전달사항 같은 것도 개인별로 매우 잘 챙겨주셨습니다. 매우 밝으시고

애기도 잘 해주시는 것을 보고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성현 멘티 : 멘토링 채팅방에 초대되어 항공대학교에 입학한 후, 가장 먼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아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 정말 따뜻하시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좋은 선배이란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드릴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해주셨고 기숙사에 처음 입사 한 날에는 혼자 있던 제 방에 찾아와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제게 있어 진혁 멘토님의 첫인상은 최고였습니다.



Q4.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정욱 멘티 : 진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선배님께서 알기 쉽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모호했던 정보들을 정리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성현 멘티 : 멘토님께서서는 저의 큰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항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잘 친해질 수 있을까, 대학생활은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등 여러 고민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

만, 멘토님께서 대학생살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제가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어두운 밤에 밝게 빛나는 북극성처럼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혁 멘토님 덕분에 여러 좋은 동기들도 사귀고, 놀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놀며 공부할 때는 누구보다도 집중하는 멘토님을 보며 동기부여를 받아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Q5.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이라면 '이것'하나 만큼은 꼭! 해야한다! 라는 것이 있다면?

이진혁 멘토 : 한국항공대학교 및 항공운항학과 대표 연례 행사 4가지를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인 기수부여식, 선배님들의 안전비행을 위한 행사인 얼레제, 동기들과 선후배,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항공운항학과 총 MT, 마지막으로 항공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 시간을 갖는 총동문 간담회 및 체육대회 총 4가지는 항공운항학과 학도로서 꼭! 하기 좋은 행사들인 것 같습니다.



이정욱 멘티 : 개인적으로 비행과 관련된 학과인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번지점프나 패러글라이딩과 같이 높은 곳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성현 멘티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이라면 대한항공 A300-600 여객기 견학은 한 번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한항공이 기증해 캠퍼스 본관 옆에 견학이 가능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멘토링 활동으로 견학을 해봤는데 이것 저것 둘러보고 여기저기 열어보고 평소에 여객기를 탈 때는 함부로 못 건들었던 스위치들을 마음껏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6. 다른 멘토팀 보다 “도란도란”팀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진혁 멘토 : 처음에는 멘토-멘티 모두가 정말 서먹했지만, 팀명처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누구보다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운항학과는 하나이기 때문에 타 멘토 혹은 멘티들과도 언제든지 함께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는 점 같습니다.

이정욱 멘티 : 일단 멘토(이진혁 선배)님이 우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주십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고 또한 멘티들도 멘토님을 잘 따라갑니다. 아마 저희를 대표하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하면 자신있게 연대와 화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서로 단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멘티 : 우선 멘토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 다른 멘티들 또한 멘토님의 말씀을 잘 따라줍니다. 멘토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실 때 잘 따라와 주고 멤버들끼리도 화목한 것 같습니다.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모인 팀인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Q7. 항공운항학과는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학과입니다. 멘티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어떤 활동을 기획하셨나요?

이진혁 멘토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취업 경쟁력이 있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로서 타 대학교 항공운항학과들과는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과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항공기 계기 및 비행 원리를 실제 시뮬레이터(BATD)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티들의 궁금증들 중 조종사로서 활동 중이신 선배님들께서 직접 여쭙보므로 더 확실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사로서의 동기 부여를 위해 국립항공박물관과 김포공항 전망대, Boeing 747 Simulator 체험활동을 기획했습니다.



Q8. Q8. 2022학년도 멘토 활동을 이어 올해도 다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멘토가 느끼는 3중멘토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진혁 멘토 :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하신 많은 조종사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행사에서 재학생들을 이끌어주듯 3중 멘토링은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선배)들이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이끌 수 있게 해주는 자리를 마련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후배 사이가 많이 단절되었지만, 3중 멘토링 프로그램과 멘토들을 계기로 다시 소통과 화합이 잘 되는 운항학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 친해 질 수 있었던 ‘기회’, 여러 뜻깊은 활동들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 무엇보다 제 자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제게 이런 좋은 ‘기회’들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9. 3중멘토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이진혁 멘토 : [징검다리] 3중 멘토링이 아니었으면 친해질 기회가 없는 후배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3중 멘토링 활동을 통해 더 후배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제가 아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사실들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징검다리는 저와 제 멘티뿐 아니라 작년 저의 멘티들이 올해 새로운 멘토가 되어 새롭게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욱 멘티 : <끈>// 3중멘토링을 하면서 새내기라서 너무 헛갈리는 것도 많고 잘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3중멘토링을 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었고 마치 끈처럼 멘토님이 이끌어 주시는 끈을 멘티들이 붙잡고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바른 길로 더 효율적이고 쉽게 갈 수 있는 끈을 따라 더 멋진 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현 멘티 : [기회] 제게 있어 삼중 멘토링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3중멘토링 멘토&멘티 인터뷰
“항아리”팀
하채언멘토, 최성현멘티, 정혜인멘티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시행하는 3중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선배, 외부전문가멘토, 지도교수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학년도 1학기 3중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영학부 “항아리”팀의 멘토링 활동에 대해 들어 보았다.

Q1. 멘토가 갖춰야 할 역량이나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채언 멘토 :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인원을 데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모이는게 귀찮을 수도 있고 새내기들을 위해 단톡방에 지속적으로 공지를 올리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멘티들과의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히 만남을 가지며 유대감을 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멘토링이 실현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Q2. 멘토로서 초기 신입생 멘티들과의 소통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채언 멘토 : 제가 1학년일 때 그랬듯이, 신입생들에게 선배들은 많이 어려운 존재일 것 같습니다. 더구나 대학생이 되어 처

음 만나는 선배이니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새내기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기대이기에 멘토들이 먼저 나서서 새내기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통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3. 멘토로서 초기 신입생 멘티들과의 소통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채언 멘토 : 항아리들은 항공대 병아리들을 줄인 팀명입니다. 과잠을 입고 신나서 학교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병아리와 같이 귀여워 보여 비유해보았습니다.



Q4. 신입생 멘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최성현 멘티 : 저는 시험에 대해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험은 처음

이어서 고등학교와는 달리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하는것 같습니다. 두꺼운 전공서적을 보며 하루에 적어도 4~5시간 강의를 듣고 시험준비와 발표까지 하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대학생활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수행하는 과제보다 팀 단위로 협동 해야 하는 과제도 있기에 재미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정혜인 멘티 : 새학기에는 당연히 인간관계를 많이 고민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 출발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더욱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자신이 경영학부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성적을 맞추어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과 또는 복수전공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중멘토링을 통해 동기생들의 고민도 듣고 선배멘토에게 학점관리와 저의 경험도 쌓을 수 있는 학교 비교과프로그램 정보를 받으며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과 지금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조금 가벼운 마음입니다.



Q5. 나의 멘토, 멘티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하채언 멘토 : 선배들이 나서서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시켜주고 궁금한 것도 직접 해결해주는 3중 멘토링은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입생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들이 잘 활용한다면 친한 선배도 만들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멘토들만 적극적인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에 멘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얻을 건 많이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현 멘티 :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서로서로 친해지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활을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챙겨주는 선배, 앞으로 점점 어려운 전공을 접하게 될 텐데 궁금한 것들을 여쭙보느라 시간을 빼앗더라도 웃으면서 이해해주는, 꼭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정혜인 멘티 : 다같이 으쌰으쌰해서 대학교 1학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장학금이나 행사 같은 것도 다 함께 참여하여 학교생활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학생활을 하면서 만난 선배멘토와 학교생활 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특별한 후배로 남았으면 합니다.

Q6. 3중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한 것이나 목표가 있었다면?

하채언 멘토 : 멘토링이 종료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언니 누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작년 멘토링 조의 멘티들과도 아직까지 잘 연락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멘티들과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보다 멘티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선배, 언니가 되어주는게 진정한 멘토링의 목표이자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3중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와 멘티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멘티들끼리도 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동기이자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최성현 멘티 : 3중 멘토링 참여 전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아 보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 같이 참여해서 친목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도 우리 팀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의 몫을 잘 해내고 성격이 모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목표가 있다면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3중멘토링의 멘토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정혜인 멘티 : 대학교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하나의 사회에서 시작이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3중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활동들을 알아가고, 대학교라는 집단에 더 깊이 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멘토선배가 알려주시

는 공모전 등을 통해 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장학금을 타는 것이 이번 3중멘토링의 저의 목표입니다.



Q7. 3중멘토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

하채언 멘토 : 3중멘토링은 '공부'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와 비례하는 성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기대 이하의 낮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멘토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임한 멘티들은 1년이 지났을 때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을테지만 그저 무관심한 태도로 임했다면 이 활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멘토링은 공부처럼 내가 임한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현 멘티 : 3중멘토링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지름길' 같습니다. 원래라면 혼자 정보를 알아가며 프로그램이나 학교 정보 같은 것을 익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멘토선배가 알려주심으로써 마치 지름길을 통해 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혜인 멘티 : 3중멘토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울지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각자의 꿈에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Q8. 새내기성공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관심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하채언 멘토 :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은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작년 멘티들과 명랑운동회를 정말 재밌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반대로 가장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멍때리기 대회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성현 멘티 : 저는 '흥미진진_흥미 STRONG 직업흥미검사'에 관심 있는데요, 사실 아직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로를 세우지 못해 걱정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어떤 곳에 흥미가 있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정혜인 멘티 : 저는 새내기 합격수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의 합격수기를 통해 항공대에 오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가 어떻게 한국항공대에 오게 되었는지 과정과 입시정보를 알려주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고, 새내기 대학생활 가이드 공모전이라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한국항공대에 익숙해질 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알게 된 것들과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을 입학하는 새내기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Q9. 앞으로의 꿈이나 희망 사항,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하채언 멘토 : 올해가 마지막 멘토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 멘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때문에 멘티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게 쉽지는 않지만 멘티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저도 멘티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해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최성현 멘티 :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학생활동 마일리지'를 많이 쌓자'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마일지를 쌓아 쌓은 마일지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는 마일지를 많이 쌓고 싶다는 목표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주 역량관리시스템을 둘러보며 할 수 있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해서 성적 또한 챙기자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인 멘티 : 저는 대학생활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오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느라 많이 지쳐있었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점도 챙기지만, 즐기며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 또한, 3학년 때 교환학생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마케터라는 저의 꿈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With KAU 4월 웹진 퀴즈 EVENT

Q. 마이크로 디그리 설명으로 옳바른것은?

- ① 이수학점 12학점, 3개까지 이수가능
- ② 이수학점 22학점, 3개까지 이수가능
- ③ 이수학점 32학점, 2개까지 이수가능
- ④ 이수학점 42학점, 2개까지 이수가능

참여방법

메일송부 (kaussc@kau.ac.kr)
인적사항은 학번+성명+핸드폰번호

응모기간

2023.04.24 ~ 2023.05.21

당첨자선물

정답자 추천하여 소정의 기프티콘 발송

당첨자발표

With KAU 23호

With KAU 3월 웹진 퀴즈 EVENT 당첨자

A. 복수전공 42학점,
부전공 24학점

2020....51 송○근

2023....54 정○철

2021....76 이○연

2023....48 박○현

2023....57 성○비



※ 제출한 핸드폰 번호로 기프티콘 발송

With KAU 멘토&멘티 참여코너

With KAU 웹진에 멘토&멘티가 참여하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3중멘토링인터뷰, 도전 백주부, KAU 백일장 코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수록해주세요.

코너명	코너소개	참여선물
멘토&멘티 인터뷰	월별 3중멘토링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신청하신 멘토 또는 멘티에게 센터의 전문멘토가 취재하여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서상품권 (5만원)
도전 백주부	시기에 맞는 요리 및 레시피를 소개해 주세요	
KAU백일장	월별 멘토&멘티가 직접 쓴 독서감상문, 여행기, 수필 등 자유로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용, 주제 자유"	

응모방법 : kaussc@kau.ac.kr

문의전화 : 새내기성공센터 02-300-0250~1



2023년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lan	1 Plan	2 Plan	3 Plan	4 Plan	5 Plan	6 Plan
←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						
7 Plan	8 Plan	9 Plan	10 Plan	11 Plan	12 Plan	13 Plan
←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						
	2023 흥미진진 프로그램(8~9) (MBTI성격유형)	전공설계 패스파인더행사	2023 흥미진진 프로그램(10~11) (STRON직업흥미)	생활법률특강 (교통사고)		
14 Plan	15 Plan	16 Plan	17 Plan	18 Plan	19 Plan	20 Plan
←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						
	퍼스널컬러	전공설계 패스파인더행사 해외여행준비하기	멘토&멘티 명때리기대회			
21 Plan	22 Plan	23 Plan	24 Plan	25 Plan	26 Plan	27 Plan
← ----- 새내기성공센터 흥미진진 진로탐색 프로그램 상시진행 ----- →						
	이미지메이킹					
28 Plan	29 Plan	30 Plan	31			



[새내기성공센터 유튜브 채널]

Follow

US:

<http://fsc.kau.ac.kr>

**now
ONLINE**



**KOREA AEROSPACE UNIVERSITY
FIRST YEAR SUCCESS CENTER**

